

# 韓 노동소득분배율 10%p↓... OECD 중 낙폭 최대

(20년만에)

(20개국)

OECD 20개국 평균 2.07%p 하락  
韓 소득분배율 66.12%→56.24%  
2018년도 기준 환산금액 90조원

日 소득분배율 53.76% '가장 낮아'  
영국은 5.46%p 상승한 63.25%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비교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 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이전까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반등했지만, 그 이후 다시 60% 수준으로 반락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 하락해 분석대상 OECD 20개 회원국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독일에서는 5.39%포인트, 프랑스에서는 0.76%포인트 하락했다.

일본(1996~2015년)과 미국(1998~2015년)에서는 각각 5.67%포인트, 3.7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잠시 하락한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 1996년 57.79%에서 2016년 63.25%로 5.46%포인트 상승했다.

분석대상 OECD 20개국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015년 기준 53.76%)이었다.

이어 그리스(2015년 기준 55.28%), 한국(2016년 기준 56.24%), 이탈리아(2016년 기준 56.79%) 순이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법인부문에 속하고 같은 비율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된다는 가정을 적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

서에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기준 90조원 정도의 막대한 액수로, OECD 평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이론적 임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저축-투자-소비' 혹은 '총공급-총수요'의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면서 "노동소득은 총수요의 원천이며, 미래수요에 대한 전망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계소득 분배율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유사한 흐름

을 보여준다.

두 비율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하고, 임금삭감, 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파산 등으로 급격히 하락한 뒤 몇 년간 안정됐다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9~2010년 사이 또 한차례 급락했다. 이후 최근 몇 년간 반등했다가 2016년에는 반등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주 교수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가구별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개선율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만큼,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평범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15일 가뭄과 폭염이 지속하면서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14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 태백 매봉산 고랭지 배추가 폭염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 /연합뉴스

## 폭염에 작황부진·가축폐사... 추석물가 '비상'

전국 농작물 피해면적 2334.8ha  
배추 10kg당 평균 도매가 42% 급등  
경기미도·소매가 각각 29%·34% ↑  
전국서 가축 폐사 544만 마리 달해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요 농산물의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목을 앞두고 시장에 내놓을 상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민이나 치솟는 물가에 걱정부터 앞서는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피해면적은 2334.8ha에 달한다.

추석 제사상에 오르는 사과, 포도 등 주요 과수농가의 피해가 1105.8ha로 가장 크다.

이들 농가는 한창 과실이 커질 시기에 열과, 낙과 등의 피해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채소류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태백과 강릉은 출하량이 푹 떨어져 배추 10kg당 평균 도매가가 평년(1만5000원)보다 42%(1만5000원)가량 급등했다.

폭염에 배추 수확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녹아버리는 꺾꽂이 현상이 속출한 것이다.

최근 50%가량 가격이 오른 무는 이맘때면 남자 성인 팔뚝만큼은 돼야 할 뿌리가 당근 크기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고, 그나마 5개 중 1개꼴로 물렁물렁해져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산지 농가의 전언이다.

수확 철에 접어든 감자의 경우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예년 수확량의 절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폭염 피해가 있는 과일 등 농산물 가격동향 점검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강원 평창지역의 감자 생산 농가는 3.3㎡당 10kg은 나와야 할 감자가 올해는 5kg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올 가을까지 감자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는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기미 80kg짜리 한 가마의 도매가격은 평균 18만6000원, 소매가격은 20만4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도매가격 14만4000원, 소매가격 15만2000원에서 비해 각각 29%와 34% 오른 것이다.

지자체와 농민들은 현재의 쌀값 감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여름 극심한 가뭄과 폭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화성시 거주 농민 김모(51) 씨는 "우리 동네의 경우 가뭄과 폭염으로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 생산량이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수확량 감소로 전체 소득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가축이 급증하면서 축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행안부에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가축 폐사 피해는 전국에서 544만마리에 이른다. 특히 밀집 사육 등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505만9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폐사한 닭 631만9000마리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닭의 폐사 원인이 대부분 조류인플루엔자(AI)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폭염 피해인 셈이다.

이 같은 영향에 올해 들어 안정세를 이어가던 닭값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육계(중품) 1kg당 소비자가격은 519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97원(8.2%) 올랐다. 올해 닭 소비자가격이 5000원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돼지(2만1000마리) 등 다른 가축은 폭염으로 인한 폐사량이 많지 않아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경기=김승열, 고성철 기자·연합뉴스

## 이산가족 실행위원 18명 금강산행

20일부터 2박3일간 '상봉' 행사  
최종점검 차 북한 방문길 올라

북에 두고온 세 살짜리 딸을 68년만에 만나는 황우석씨, 돌아가신 부모 대신 여동생과 남동생과 상봉을 앞둔 박기동씨, 전쟁 중에 헤어졌던 큰 형을 68년만에 만나는 이수남씨...

오는 20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만나게 될 남측 방문단에 포함된 이름들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철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18명은 행사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15일 오전 금강산으로 떠났다.

남측 방문단 중 한 명인 황우석(89·서울)씨. 그는 딸 영숙(71)씨와의 재회가 실감나지 않는 듯 "3개월만 피난하고 고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나왔거든. 그런데 그게 68년이 됐어요. 세 살짜리가, 71세예요. 부녀상봉이라는 게 참... 소설 같은 얘기예요"라고 말을 전했다.

38선 이남 미수복지 황해도 연백군 출신인 황씨는 1951년 1·4 후퇴 때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홀로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

3개월만 몸을 피할 생각이었지만, 그 길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물론 처자식과도 생이별했다.

당시 딸은 겨우 세살배기. 워낙 어릴 때라 딸의 생김새는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해진 지 오래다.

"아휴, (기억) 안 나죠. 세 살 적이라... 이름 보고 찾아야죠. 이번에 가서, 강산이 7번 변했는데."

황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번 상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꿈에 그리던 가

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딸을 제외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모두 사망했다는 통보를 별도로 받았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박기동씨(82)는 여동생 선분(73)씨와 남동생 혁동(68)씨를 만날 생각에 떨었지만 동생들에 대한 기억이라곤 이름밖에 없다.

박씨는 "북쪽에 거주했던 부모님과 함께 상봉하길 원했으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번에) 형제들의 생사가 확인되고 상봉 의사가 있다고 회보가 돼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에 남겨진 막내 남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는 박씨는 여동생 선분씨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동생의) 손을 잡고 동네를 다녔다"는 추억의 한 토막을 끄집어냈다.

황해도 연백군(현재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없어짐)이 고향인 박씨는 3남 2녀 중 장남으로, 6·25 전쟁 발발 당시 서울에서 배재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보인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6살 위의 삼촌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던 중 전쟁을 맞았다.

고향에서 살던 박씨의 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강화군 교동면으로 피란을 왔지만, 부모님이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식량을 가지러 고향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영영 헤어지게 됐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이웃, 친척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수남(77)씨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둘째 형 종식(82)씨와 함께 북한의 큰형 종성(85)씨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의 상봉은 68년만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금강산을 방문하는 통일부 선발대 직원들이 15일 아침 서울 종로구 남복회담본부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